

광주 대화가 총학선거 후폭풍 몸살

전남대 선거공용비 과다문제로 무산...내년 사상 첫 재선거

조선대 선거인명부 축소 의혹 제기...당선 확정공고도 못 내

광주지역 대표 대학들이 최근 치러진 총학생회 선거 후폭풍에 시달리면서 흥역을 치르고 있다.

전남대의 경우 총학생회 '선거 공용비' 과다 문제에서 촉발된 학우들의 선거 보이콧 사태로 인해 사상 최초로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조선대는 선거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인명부를 축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아직까지 당선 확정공고도 내지 못하고 있다.

두 대학 학생들 사이에서는 상아탑에서조차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행정지권의 모습이 비치는 것 같아 씁쓸하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전남대의 경우 지난 21~23일 진행된 2017년 총학생회 선거가 사상 최초의 투표율을 보이면서 무산됐다. 이틀간 연장투표에도 불구하고 최종 투표율이 41.43%로 집계되면서 전남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투표율이 50%를 넘기지 못하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선거 세칙에 따라 내년에 재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대 관계자는 "경선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50%를 넘기지 못한 것은 이번 선거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전남대는 이번 총학생회 선거 무산으로 총학생회도 구성하지 못하고 내년을 맞이하게 됐다. 당장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부터 입학식 등 내년 3~4월에 예정된 행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견됐던 결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남대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선거본부당 400만원에 달하는 선거 공용비 과다 문제를 지적한 한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후보자가 일부 언론에 제기한 선거 공용비 과다 문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퍼포먼스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후보자격 박탈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내에서는 '위법적 규정'으로 후보자를 탈락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퇴하는 등 파행을 겪으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총학생회 선거 보이콧

운동까지 벌어졌다.

전남대 한 학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적 규정으로 후보를 탈락시켜 부정을 자초했고, 이런 일이 전남대에서 일어난 것을 본 학우들이 실망감을 보이콧으로 답한 것"이라며 "학생들의 권리 주장이라는 총학의 기본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한 현 총학에 대한 실망감의 표현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조선대는 지난 21~22일 이틀간 진행된 2017년 총학생회 선거 결과를 최종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두 선거본부의 경선으로 진행된 이번 총학생회 선거는 2번 후보 측이 279표 차로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1번 후보 측이 개표 다음날인 지난 24일 "재학생 총원은 1만8360명이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에 1만

707명만을 기재, 1281명을 사고자로 분류했다"며 "선관위가 사고자 분류를 잘못 하면서 재학 중인 학생들이 투표소에서 투표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상대 후보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며 "개표 후 24시간이 지났는데 당선 발표를 하지 않아 당황스럽다. 아무런 답변이나 조치가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처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본보는 두 대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관심 집중 이화여대 '정유라 특혜 입학' 의혹을 사고 있는 서울 이화여자대학교가 27일 '201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논술고사'를 실시했다. 시험을 치른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교문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사·물리Ⅱ...수능, 또 출제 오류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출제 오류가 발생했다. 들쭉날쭉한 난이도로 혼선을 초래한데 이어 출제 오류가 반복되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공신력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평가원은 2017학년도 수능시험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한국사 영역 14번 문항의 정답을 애초 정답으로 제시했던 1번 외에 5번도 인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과학탐구영역 중 물리Ⅱ 9번 문제도 '정답이 없다'고 결론내리고 모두 정답으로 인정기로 했다. 평가원은 원래 3번을 답으로 인정했었다.

1994년 수능시험 체제가 도입된 이후 출제 오류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특히 올해 수능 시험 문항 오류로 인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출제단의 1차 검토본을

토대로 검토단의 피드백, 영역별 교차검토, 전문가를 통한 교차검토를 거친 뒤 문항검정위원회가 최종 검증을 진행하는 등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출제 오류가 드러나면서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자연계 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물리Ⅱ의 경우 0.97점 정도 평균 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표준점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2014학년도 수능에서는 세계지리 8번 문항을 놓고 소송전까지 벌어진 끝에 1년여 만에 복수 정답이 인정되면서 성적 정정과 추가합격 조치가 이뤄지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다. 2015학년도 수능에서도 생명과학Ⅱ와 영어에서 복수 정답이 인정되면서 당시 평가원장이 자진 사퇴했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전문대 정시모집...내년 1월 3일부터 접수

2017학년도 전문대 정시모집에서는 전국 137개 전문대학이 3만2415명을 뽑는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전체 모집인원(21만1174명)의 15.3%인 3만2415명을 뽑는 '2017학년도 전문대 정시모집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지난해 모집인원(3만4268명)에 견줘 1853명 줄었다.

정시모집 인원 비중은 ▲2015학년도 17.9% ▲2016학년도 15.9%에 이어 올해 15.3%로 0.6%포인트 감소하는 등 매년 감소세다. 모집인원 감소는 수시모집 확대와 정원 감축 등의 구조조정에 따른 것이라는 게 협의회 설명이다.

원서 접수는 내년 1월3~13일(11일간·1차), 내년 2월10~14일(5일·2차) 진행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20
해질녘 17:21

달돋이 05:49
달질녘 16:51

건강관리 유의

고기압의 영향으로 받아 대체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음	3/10	보성	맑음	1/9
목포	맑음	5/9	순천	맑음	3/11
여수	맑음	5/10	영광	맑음	3/9
나주	맑음	2/10	진도	맑음	5/10
완도	맑음	6/10	전주	맑음	1/9
구례	맑음	1/8	군산	맑음	1/8
강진	맑음	4/10	남원	맑음	-1/9
해남	맑음	3/10	흑산도	맑음	7/8
장성	맑음	2/9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1.0~2.5	북서~북 1.0~2.0		
남부	면바다	북서~북 2.0~3.0	북서~북 1.0~2.5		
	앞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5		
남해	면바다(동)	북서~북 1.0~2.0	북서~북 1.0~2.0		
서부	면바다(서)	북서~북 2.0~3.0	북서~북 1.5~2.5		

◇생활지수

	보통
	보통
	보통
	낮음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6:32 19:05	01:08 13:47
여수	01:57 14:34	08:34 20:28

◇주간 날씨

29(화)	30(수)	11/1(목)	2(금)	3(토)	4(일)	5(월)
0/13	2/12	5/11	1/10	1/12	3/12	3/12

목포·진도·흑산도 첫 눈...이번주 큰 추위 없어

지난 26일 목포, 진도, 흑산도(신안) 등 전남지역 곳곳에서 올 겨울 들어 첫 눈이 관측됐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관측된 첫눈은 지역별로 평년보다는 4~8일 빨랐고, 지난해보다는 2일 일찍 내렸다.

기상청은 지난 24일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서쪽에 이동한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

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과 만나면서 첫눈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목포 등 서해안에 첫눈이 내리던 날 지리산 도로가 결빙돼 성삼재 구간을 오가던 관광버스 등 차량 10여대가 3시간 가량 고립됐다가 운행을 재개했다.

한편 오늘부터 주말인 다음달 3일까지 광주·전남은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김형호기자 khh@

“금남로 초고층 아파트 건설시 주민피해 심각”

교통 혼잡·열섬 현상 등...광주환경연합 재검토 촉구

광주지역 환경단체가 광주시에 금남로 주변 뉴문동 초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뉴스테이)의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재개발사업으로 계획 중인 최고 44층 짜리 아파트를 비롯한 3500세대가 들어 서면 교통 혼잡, 열섬 현상 가속화, 경관 훼손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7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는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인 뉴문동 고층 아파트 건설사업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광주환경련은 “광주시는 최근 뉴문동 일원에 3524세대에 이르는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를 열었고, 29일에는 도시경관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서 “건설 계획대로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시내 중심가 교통혼잡은 물론 여름이면 광주전, 무등산 등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마저 차단해 도심 열섬효과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뉴문동 뉴스테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사업으로 본래 중산층에게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적으로 출발했지만, 그 속을 보면 시행과 시공을 맡은 민간건설사가 수익을 쟁기고 부작용은 시민들이 떠안게 되는 구조”라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www.aroma-life.co.kr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맛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
-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
-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별단면옥각형)
-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

아모리온
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아모르
러닝+팬츠 일체형
남성용 슈트